

2026년 주님의교회 표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_ 디모데전서 4:5
-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17-18

오늘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여름이 오면, 믿음의 기억이 떠오르기를

여름이 오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수련회장을 향하던 설렘, 밥을 먹기 전 말씀암송을 해야 했던 긴장감,
낮에는 땀 흘리며 뛰놀고 밤에는 예배당을 가득 채웠던 찬양과 뜨거운 기도소리.
캠프파이어 불빛 앞에서 손을 잡고 찬양하던 밤과 눈물로 결단하던 기도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믿음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된 소중한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올여름 주님의교회 다음세대도 그런 믿음의 기억을 품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유아숲 아이들은 야곱의 이야기를 따라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며 믿음의 항해를 떠납니다.
브엘세바와 벤엘, 하란과 압복강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두려운 순간에도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찬양과 말씀, 놀이와 활동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하세요”라는 고백이 심겨지기를 기대합니다.

유소년숲의 유년부·초등부·소년부 어린이들은 “용서받고 사랑하고 GOGO 대모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배웁니다.
또한 EM은 “Rainforest Fall: Exploring the Nature of God”라는 주제로
시편 103편 22절 말씀을 따라 영어 예배와 바이블 스토리, 찬양과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을 즐겁게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는 마태복음 16장 13~16절 말씀을 중심으로 “Who?!”라는 주제의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학생들은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번 여름은 신나는 활동과 즐거운 추억으로
먼저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웃음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심을 믿습니다.
훗날 우리 아이들이 여름을 떠올릴 때,
그 기억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고,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 야곱편

2026년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_야곱편”입니다.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갈등, 부모의 어긋난 자녀 사랑, 개인의 욕망이 고스란히 드러난 한편의 가족 드라마 가운데 화해와 사랑으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한 사람의 인생의 성장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기부와 영아부

어린 아기들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부모 세대에는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고 아기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유아부와 유치부 - 믿음의 배가 출항합니다! “출항 준비 완료!”

우리 유아·유치 아이들이 아주 특별한 배에 오릅니다. 목적지는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닙니다. 도착지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야곱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믿음의 항해로 진행됩니다. 아이들은 성경 속 야곱처럼 낯선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의 여행은 처음부터 멋지고 완벽하지 않았습다. 야곱은 집을 떠나야 했고, 혼자 잠을 자야 했으며, 두려운 순간도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고, 야곱의 걸음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납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모두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찬양을 따라 부르고, 친구들과 함께 뛰고, 말

씀을 듣고,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동안 아이들의 마음에는 작지만 분명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은 믿음의 배를 타고 여러 항해 지점을 지나갑니다. 브엘세바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알려주세요”라고 배우고, 벨엘에서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세요”라고 고백합니다. 하란에서는 돌봄과 인내를 경험하고, 압복강에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배웁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특별한 대그룹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하세요.”

어쩌면 아이들에게 여름성경학교는 신나는 게임과 재미있는 활동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웃음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두려운 길을 걸을 때, 낯선 환경을 만날 때, 마음이 작아질 때 이번 여름에 배운 고백이 다시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세요.”

올여름, 유아·유치 아이들의 믿음의 항해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라는 든든한 바람을 타고,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

이영선 목사 / 유아숲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은혜의 여름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올여름 주님의교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용서받고 사랑하고 GOGO 대모험”이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과 에베소서 4장 32~33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획된 이번 성경학교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 있는 영적 존재로 다시 일어나는 회복과 부흥의 시간이 되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유년부는 7월 25일(토)부터 26일(주일)까지 주님의교회에서 무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말씀 교육과 신나는 찬양, 레크리에이션, 만들기와 체험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기쁨으로 신앙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초등부는 7월 24일(금)부터 26일(주일)까지 양주 딱따구리수련원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말씀과 기도,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친구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협력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소년부는 같은 기간 충주청소년수련원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 중심의 깊이 있는 영적 프로그램과 소그룹 나눔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며,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EM(English Mini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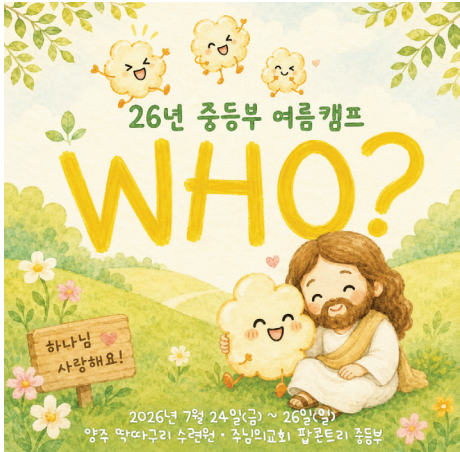
EM(English Ministry)은 “Rainforest Fall : Exploring the nature of God”라는 주제로, 시편 103편 22절 말씀을 따라 7월 18일(토)부터 19일(주일), 그리고 22일(수)까지 무박 2일 일정으로 주님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영어 예배와 바인블 스토리, 찬양, 다양한 게임과 만들기,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즐겁게 영어를 배우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모든 유소년숲 교사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힘있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훈 목사 / 유소년숲

참된 예수님을 발견하는 여름 - 중등부 여름캠프

청소년숲 팜콘트리 중등부는 7월 24일(금)부터 26일(주일)까지 ‘Who?’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양주 딱따구리 수련원으로 여름 캠프를 떠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지역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생각했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그려졌습니다.

요즈음 세상에서도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

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된 모습이신가?’ 이 지점에서 이번 팜콘트리 중등부 여름 캠프는 팜콘이들과 함께 각자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나누고, 예배와 기도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된 진리이시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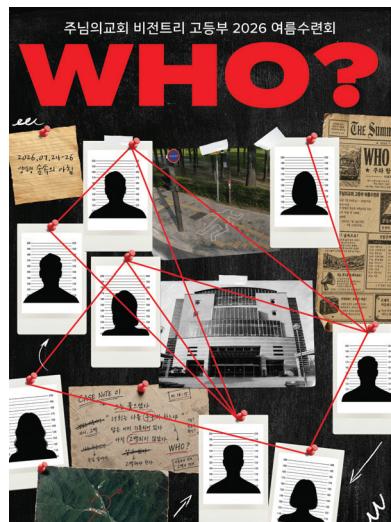
팜콘이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앎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며, 경험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쟁과 비교가 중심 가치가 되는 사회 가운데서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팜콘이들이 생명과 존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성민 전도사 / 중등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마주하다 - 고등부 여름수련회

울여름 주님의교회 비전트리 고등부는 “Who?!”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16절을 중심으로 기획된 이번 수련회는 학생들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온전히 고백함으로써 진정한 존재 가치를 깨닫고, 세상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는 학생들이 말씀에 더욱 친근하고 몰입감 있게 다가

갈 수 있도록 ‘추리’라는 콘셉트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조원들과 함께 단서를 찾고 미션을 해결하는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합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모든 수련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마주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을 삶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으로 동참해 주세요. 준비하는 교사들과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가 성령 안에서 안전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동길 전도사 / 고등부



18년의 사랑나무, 감사로 돌아본 은혜의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글을 적습니다.

사랑나무 18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친구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섬기다가 떠나셨고, 지금의 사랑나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수련회 장소를 물색하며 여러 곳을 다니다가 지금의 장소를 제공해 주신 장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낮가림이 심한 친구들인데, 익숙한 장소에 다니다 보니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감사했습니다. 최상의 장소와 좋은 공기 속에서, 좋은 식사와 좋은 숙소를

통해 모두의 얼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학부모, 친구들, 선생님들이 함께 어우러져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하면서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갔고, 웃으며 즐겁게 지낸 1박 2일의 힐링 시간이었습니다. 날개 없는 천사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장로님과 정성으로 식사를 준비해 주신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교회에 사랑나무부가 있어서 연약한 친구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교역자와 봉사자들에게도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선 권사 / 사랑나무 교사

새내기 교사가 만난 사랑나무의 은혜

올해 사랑나무에 들어온 새내기 교사인 제게 이번 수련회는 참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은혜 안에 뛰놀리라”는 주제처럼, 사랑나무 형제들과 함께 웃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품 안에서 보낸 딱 1박 2일의 시간은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는 부모님들도 함께하신 자리였기에 더욱 뜻깊었습니다. 사랑나무 학생들을 곁에서 늘 돌보시는 부모님들의 마음과 수고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고, 그분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인 학생들뿐 아니라 부모님들까지 함께 품어 가야 할 사랑나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과도 더 친해지고 서로를 알아 가는 시간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

하는 모습을 보며 더 큰 신뢰와 사랑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수련회장을 꼭 채웠던 50명의 사랑나무 식구들이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듣고, 학생들의 손을 잡고 통성기도로 뜨겁게 예배드렸던 밤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운환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삶으로 증거하는 제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예배는 이왕헌 목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꼼꼼한 준비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훌륭한 시설과 정성 어린 식사를 제공해 주신 박재준 장로님과 센추리21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도 사랑나무 공동체 안에서 더 기쁘게 섬기고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수향 집사 / 사랑나무 교사



주님 안에서 함께 뛰놀고 자라난 사랑나무

사랑나무 수련회는 사랑나무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수련회입니다. 세상 살아가느라 바쁜 가운데,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도 가족이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부부가 함께, 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더욱 가족 같고 친척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트렁크가 터지도록 수련회 예배와 성찬식, 기도회, 게임과 도구를 준비해 주신 배운환 목사님과 이왕헌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니다. 또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다 갈 수 있도록 장소와 식사를 마련해 주신 박재준 장로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랑나무 수련회는 사랑나무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제하며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고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장애인들보다는 느낄 수 있지만, 조금씩 신앙을 쌓아 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승현 집사 / 사랑나무 학부모

초록 숲에서 함께 걸은 식당나무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우리 식당나무는 광릉수목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두 분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휠체어 리프트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덥지 않아서 나들이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수목원에 들어가서는 눈앞에 펼쳐진 초록 숲에 저절로 탄성이 나왔습니다.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살짝살짝 비치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 걷는 내내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평소 저의 일상에서 쉽게 누리지 못했던 자연의 싱그러움을 이날에는 흠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통 초록인 숲을 즐기면서 식당나무 가족들과 사진 찍는 즐거움도 빠질 수 없었지요. 걸다가 카메라만 들면 갑자기 우르르 모여 환하게 웃으며 브이를 날렸습니다.

점심으로는 삼계탕과 버섯전골 중에서 골라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근처 넓은 베이커리 카페 2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삼삼오오 테이블에 모여 커피와 빵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이곳, 이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짧은 인사만 나누는 게 전부였던 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고, 서로를 조금 더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어 보였던 사람들도 할 말이 가득했다는 걸 새삼 깨닫기도 했어요.

식당과 카페는 모두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미리 답사하신

목사님들 덕분에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로 이동할 때는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뒤에서 밀며 ‘함께’ 걸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식당나무는 ‘구별되지 않은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도움을 주는 사람도 모두 똑같이 마음껏 즐거워했던 그날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딱 좋은 날씨에 식당나무 가족들이 틀에 박힌 일상을 벗어나 이토록 싱그러운 자연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리 애써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 속에서 함께 누린 이 은혜가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도 계속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김혜영 집사 / 4교구

수화기 너머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무더운 여름날, 주님의교회 전화상담부는 「경청의 예술, 듣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전화상담부원 뿐 아니라 경청과 상담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함께하며 더욱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주님의교회 전화상담부는 오랜 시간 수화기 너머의 이웃들을 만나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며, 때로는 말보다 깊은 공감으로 걸을 지켜 왔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시니어 교구 가정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전화를 시작하여 돌봄 사역의 지경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안부를 묻고 삶을 나누며 공동체의 사랑과 따뜻한 관심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비워야 들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경청의 본질을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의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 해석으로 가득 찬 채 대화를 이어 갈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내어 주는 일임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특히 경청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임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묵상하며,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먼저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자세를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짧은 인사 한마디이지만, 그 안에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아닙니다”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역은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섬김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며, 경청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 곁에 머물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작은 안부와 따뜻한 경청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맡겨 주신 섬김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겠습니다.

진주현 집사 / 전화상담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방 사역과 상담 공부의 길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든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위로를 전하는 통로로 남기를 기도하며, 더 많은 젊은 세대가 경청과 돌봄의 사역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천경숙 권사 / 전화상담부

상담실에서 안부전화를 드렸을 때, 자신을 기억해 주고 관심 가져 준다는 사실에 감사하셨다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을 헤아리며 따뜻한 관심을 전하고, 잠시나마 위안을 누리실 수 있도록 선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정영모 집사 / 전화상담부

군과 교회가 함께 세운 영적 징검다리

오산리 기도원을 가득 채운 기독 장병들의 뜨거운 함성과 기도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초여름의 푸르름이 가득한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은 무더위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젊은 영혼들의 뜨거운 기도로 가득했습니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인연합회가 주관한 “26 6.25상기 기독 장병 구국성회”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모인 3,500여 명의 기독 장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기독 청년들이 한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을 뛰게 하는 장관이었습니다.



전역 후를 잇는 영적 징검다리, ‘청년 장병과 교회의 결연’

이번 성회의 가장 뜻깊은 하이라이트는 둘째 날인 18일에 열린 ‘결연 축제’였습니다. 결연축제는 민간 교회와 군 교회의 결연을 통해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군선교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달려온 60개 교회가 참여해 다채로운 부스를 준비했고, 군복과 생활복 차림의 장병들은 각 교회가 마련한 음료와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 즐기며 환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교회가 준비한 ‘베드로 수산’ 부스는 마치 살아 움직이듯 펄떡이는 물고기 모형 등으로 장병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큰 인기를 끌

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김주환 목사님과 신앙 상담으로 이어졌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와 가까운 지역의 장병 23명이 결연을 맺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한 이번 결연은 전역 후에도 신앙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장병들을 주소지 인근의 건강한 교회와 연결해 주는 ‘이음의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젊은 기독 청년들과의 상담: “한국 기독교의 장래는 밝다”

행사 중에는 젊은 기독 군인들과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상담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최근 청년 복음화율이 낮아지며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현장에서 만난 장병들의 모습은 그러한 걱정이 결코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군 복무라는 고단한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비전을 품은 장병들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청년들이야말로 전역 후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귀한 주역이자 영적 자산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참으로 귀한 기회였고, 한국교회의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은혜와 기쁨이 넘쳐났던 생동감 있는 축제의 현장

이번 행사는 엄숙하고 무겁기만 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젊음과 에너지가 넘쳐나는 ‘즐거운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장병들은 서로를 격려했고, 교회는 아낌없는 사랑과 섬김으로 장병들을 따뜻하게 품었습니다. 세대를 초월해 군과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복음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망을 품고 삶의 자리로 향하며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함께 땀 흘리며 수고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에는 큰 보람이 남았습니다. 동시에 이 사역의 중요성을 깊이 절감하며, 앞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한국교회와 나라를 향한 소망을 더욱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매년 7만여 명의 군인들이 진중 세례식을 통해 세례를 받고 군 생활을 시작하며, 또 그만큼의 장병들이 전역 후 사회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피어난 신앙의 불꽃이 전역 후 사회에서도 꺼지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어머니 같은 품으로 이들을 맞이하고 영적 고향이 되어주는 일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소중한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의 국방은 강력한 무기 이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무릎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 또한 군경선교부장으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군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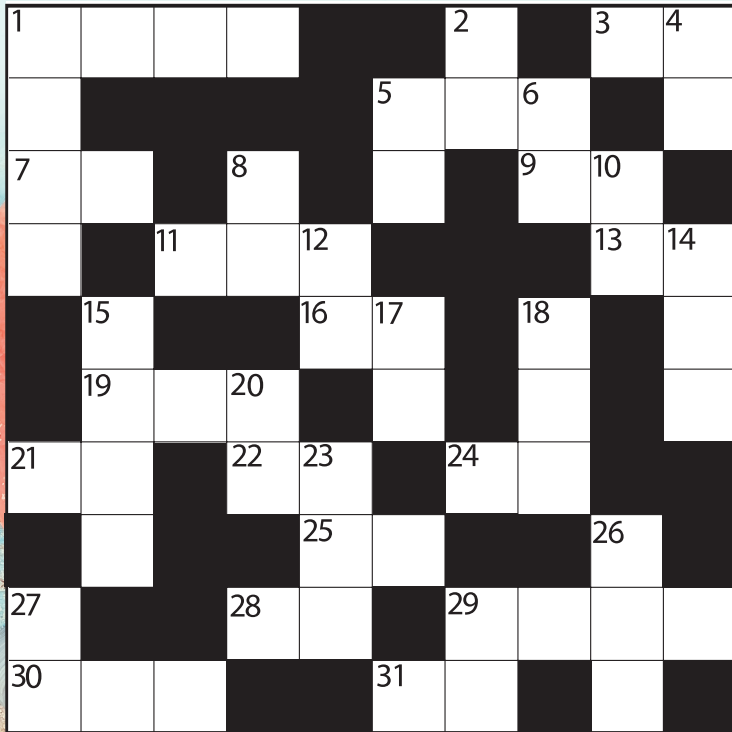
3,500여 명의 젊은 장병들이 뿌린 기도의 씨앗과 이들을 품은 60개 교회의 사랑, 그리고 우리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축제를 위해 헌신하신 군종목사단과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한국교회의 밝은 미래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성호 안수집사 / 군경선교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히브리서 편

이번 호는 신약의 열아홉 번째 권인 <히브리서> 편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로 추정되며, 서기 68~69년경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518호 빌레몬서 편 정답



가로 힌트

1. 성경에서 지금의 이탈리아를 뜻하는 옛 표기. 처음에는 이탈리아 반도의 끝 지역 이름이었으나, 곧 로마 제국의 세력이 미치는 반도 전체의 지명으로 확장되었다. (히 13:24)
3.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다. (히 1:4)
5. 재산이나 지위, 신분을 이어받는 사람. 구약에서는 대개 장남이 이런 사람이었지만, 자식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나 종이 이어받기도 했다. (히 11:7)
7.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히 11:31)
9. 어떤 것을 알려주거나 강조하기 위해 다른 것에 빗대어 말하는 수사법. 예수님이 주로 이 수사법으로 말씀하셨다. (히 9:9)
11.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을 말한다. (히 1:1)
13. 어떤 것을 되풀이하여. (히 2:13)
16. 신뢰가 있고 착실함. (히 3:2)
19.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였다. (히 11:32)
21. 어떤 약속을 지키거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굳은 다짐. (히 6:13)
22. 어떤 날의 하루 전. 오늘의 어제. (히 10:32)
24. 어떤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른 생각, 의지, 판단, 행동. (히 4:14)
25. 어떤 것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본래부터 갖고 있는 성격이나 품성, 관심을 말하기도 한다. (히 8:10)
28.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사사였으며, 서원에 따라 무남독녀 외동딸을 바쳤다. (히 11:32)
29. 여러 해를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끝이 없음을 뜻하는 말. (히 13:21)
30.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척박한 땅이나 돌 틈 사이에서 자라는 허브과의 식물. 꽃의 향기가 짙으며, 정결식에 사용되었다. (히 9:19)
31.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 (히 1:3)

세로 힌트

1. 압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 얻은 새 이름. 지금은 중동에 있는 한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다. (히 8:8)
2. 대개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지키기로 합의한 내용, 또는 그 행위. 두아에무아(1970), 김하정(1974), 박기영(1999), 김범수(2004), 장윤정(2007), 엑소(2014) 등 많은 음악인들이 이 제목의 곡을 발표하기도 했다. (히 4:1)
4.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몹시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감정. 이 어휘가 들어간 노래 제목은 수없이 많다. (히 1:9)
5. 서로 관계가 있음. 한자가 다른 어휘로 자신보다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히 9:28)
6.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가깝게 여겨 인정이나 물질로 베품. (히 2:17)
8. 힘이 될 만한 사람이나 사물에 기댐. (히 11:21)
10. 야곱의 넷째 아들. 여기에서 예수님이 속한 지파가 유래되었다. (히 7:14)
12.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말하는 그 사람의 몸, 또는 그 사람을 스스로 이르는 말. (히 5:3)
14. 예루살렘에 있는 야트막한 고지. 다윗이 요새를 세웠다. (히 12:22)
15. 구약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히 5:6)
17. 실제의 상태나 내용. (히 11:1)
18. 곡식이나 음식을 담아 두는 데 쓰는, 입구가 오목하고 배가 통통한 그릇. 보통 질흙으로 빚은 후 유약을 발라 불가마에서 구워 만든다. (히 9:4)
20. 본바탕이 그대로 유지됨. 또는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히 2:10)
23. 여러 날에 걸쳐 매일 반복되어. (히 7:27)
26. 구약에 나오는 인물.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다. (히 11:32)
27.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는 방식이나 수준. (히 12:7)
29.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두루 부르는 말.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 가운데 "나는 '이것' 모르고 살았노라"라는 제목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히 11:38)

유아숲 여성성경학교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야곱편-

2026. 7. 11(토) - 12(주일)

각부서설

찬양과 말씀-대그룹활동-센터학습-축복의 시간

주님의교회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일정

(유아)

10:00

맞이 및 등록

포토존 사진촬영, 등록 및 접수, 사전활동

10:30

찬양 및 예배

찬양(20'), 예배(40')

11:30

소그룹 (반별 모임)

굿즈 캐리어 및 스토리북 진행

11:50

점심식사

메뉴 : 소불고기 덮밥

12:50

찬양 및 센터학습

센터학습 "야곱처럼 믿음의 여정"

14:00

대그룹 활동

블랙라이트 퍼포먼스 놀이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14:30

귀가

용서받고 사랑하고 GOGO 대모험

2026 유년부·초등부·소년부 여름성경학교에 초대합니다!

주제

용서받고 사랑하고 GOGO 대모험
(사 55:7, 엡 4:32)

일정

유년 1,2부	초등 1,2부	소년 1,2부
7.25(토)~26(주일) 무박 2일 주님의교회	7.24(금)~26(주일) 2박 3일 양주 딱따구리수련원	7.24(금)~26(주일) 2박 3일 충주청소년수련원

7/11 (토)

아기&영아부 성경학교일정표

8:30~10:00	교사경전회 및 준비	3층 소년부실 / 전채교사
10:00~10:30	등록 [사전활동] 항해왕지 꾸미기 (스티커 놀이)	3층 소년부실
10:30 ~ 10:50	찬양축제 찬양 돌기 ->	찬양팀 허소정 송에서 정하나
10:50 ~ 10:55	기도 /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기도: 영아부 박수의 부장님 말씀 봉독: 이영선 목사님
10:55 ~ 11:10	인형극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야곱 이야기)	인형극팀 (이진원, 김예경, 송준영, 허소정, 송에서, 정하나)
11:10 ~ 11:20	축복의 시간 광고 및 단체 사진 촬영	광고: 아기부 어진원 부장님
11:20~12:00	점심 식사	
12:00~12:40	대그룹 활동	1) 믿음의 사다다리를 건너요 (체육 활동) 2)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요 (파라슈트 놀이)
12:40~13:00	귀가/ 뒷정리	

*** 주일은 각 부서에서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7/11 (토)

성경학교일정표

(유치)

8:30~10:00	교사경전회 및 준비	유치부실 / 전채 교사
10:00~10:30	등록 [사전활동] 캐리어 꾸미기 (스티커 놀이)	1층 로비
10:30 ~ 10:50	찬양축제 찬양 돌기 ->	찬양팀 김경진 정세연
10:50 ~ 10:55	기도 / 말씀 창세기 32장 28절	기도: 유치부 이향희 부장님 말씀 봉독: 조규환 전도사님
10:55 ~ 11:15	나레이션 무연극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야곱 이야기)	인형극팀 (김가현, 조규환, 송성욱, 이은혁)
11:15 ~ 11:25	광고 및 단체 사진 촬영	광고: 유아숲1부 지형민 부장님
11:25~11:30	유아부 이동	
11:30~12:00	소그룹 활동	각조 선생님
12:00~12:50	점심식사	
12:50~12:55	찬양	정세연 선생님
12:00~12:40	센터 학습	1) 음악 활동 2) 미술 활동 3) 산책 활동 4) 요리 활동
12:40~13:00	귀가/ 뒷정리	***유아/유치부 귀가시간 14:30 ***본요일 여름성경학교 귀가 시간이 야기, 영아 부와 상이합니다. 영아 부는 귀가 시간이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귀가 시간까지 기다려야만 1층 입내실에서 기다려주세요.

PCLE CHILDREN SUMMER VBS

여름성경학교

RAINFOREST FALLS

Exploring the Nature of God

일시

7.18 (sat) - 19 (sun) / 22 (wed)

대상

초등생 전학년 (새친구 환영합니다 ♥)

문의

정지인 목사 (010-7280-2488)

Praise the Lord, everything he has created,
everything in all his kingdom.

Psalms 103:22

교회일정

7/3(금) - 7(화)	청년부 C국 비전트립
7/4(토) - 5(주일)	너나들이 여름수련회
7/5(주일)	성찬주일, 비전트립 파송식
7/6(월) - 15(수)	코스타리카 비전트립
7/11(토)	청년부 사랑침터의 집 봉사
7/11(토) - 12(주일)	유아숲 여성성경학교
7/12(주일)	정기당회
7/15(수) - 19(주일)	베트남 비전트립
7/17(금) - 19(주일)	청년부 농활
7/18(토) - 19(주일), 22(수)	EM Children Summer VBS
7/22(수) - 27(월)	필리핀 비전트립
7/24(금) - 26(주일)	초등부,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7/24(금) - 27(월)	일본 비전트립
7/25(토) - 26(주일)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1. 제19회 정신청소년포럼 특강

일시 7/10(금) 오후12:00
장소 대예배실
주제 생명과학과 식품
강사 이흥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과)
대상 정신여고, 주님의교회,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문의 김계원 목사(010.8407.3882)

2. 교회 공사일정 안내

일정 중정 승강기 설치(7/6~11/30)
사무국 리모델링(7/13~8/12)
7/8 LED 전등 교체 공사 시작(대예배실 7/20~25)
* 자세한 사항은 교회 게시판 참조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여름 방학 7.21(화)~8.28(금)

02) 416-5183

오후 1:00~5:00 (화~금)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함줄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줄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줄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십자말씀이 518호 정답자: 정현정 집사(5교구)

십자말씀이와 함줄함울 기사를 읽고 소감을 제출해주시는 분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씀이는 함줄함울
지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을,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줄함울
메일(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교회

